

## 모세

출애굽기 2: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  
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  
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라는 뜻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로부터 물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이미 죽어야 합니다. 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 이름합니다. 모세는 지난 80년의 인생이 떠돌이였으며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출생하면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따돌림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데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모세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과정 중에 고난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 1. 민족이 고난받을 때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  
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모세는 애굽의 학대가 가장 심할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 다 찼을 때, 식민지 마지막 시절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시절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 2.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굽의 인구 제한 정책으로 딸이면 살지만, 아들이면 죽임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역청 상자에 띄운 것이 아닙니다. 거친 강물에 뒤집히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 3. 미디안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고, 40년 동안 눈치 보며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양을 칩니다.

### 4.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출애굽기 2: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얻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인데 아들의 이름에 모세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80년 이상을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인 것 같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물에

서 주워온 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모세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 2021년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3.1~4.27)